

韓國建築研究 의 足跡

金 東 賢

(文化財研究所 / 保存科學研究室長)

韓國建築史의 연구는 1902년 일본의 建築史學者 関野 貞씨가 대한, 경상남북도 및 서울 開城等地를 조사하고 1904년 「韓國建築調查報告書」를 學界에 발표하므로써 우리나라의 建造物이 學文的으로 注目을 받기 시작한契機가 되었다. 그後 日政期에 들어와 日人學者들의 古建築分野에 대한 조사와 建造物의 修理 및 補修, 그리고 建築史學者들의 論文과 著書들이 발표되므로써 우리나라 建築史는 서서히 體系를 잡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는 모든分野가 그러 했듯이 建築史 分野 역시 刮目할만한 事件은 別無하였다. 그후 1960년대에 들어서서 建築史는 각 分野別로 활발한 연구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약 20년간 至大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고 韓國建築史 연구는 점차 本軌道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02년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80년간의 建築史 연구활동을 10년간씩 구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旧韓末~1909년

1902년 일본 建築史學者 関野 貞씨가 대한하여 경상남북도 및 서울·開城等地에 유적을 地表調査하고 1904년 「韓國建築調查報告書」를 발간하였다. 「韓國建築調查報告書」내용은 크게 4篇으로 나누어 線論, 新羅時代, 高麗時代, 朝鮮時代別로 구분하여 時代別로 都城·寺院·陵墓·王宮·鄉

校·書院·住宅 등을 서술하고 결론으로 中國 및 日本建築과의 關係를 논하였다. 이 報告書 내용 중 중요한 것은 調査當時의 유적과 遺構의 사진이 290여편 실려있는 점이며 이들 사진재료는 일인들 손에 의해 補修되기 이전의 것이어서 더욱 가치를 갖고 있다.

○ 1910년대

1912년 강릉 客舍門, 영주 浮石寺 祖師堂을 보수하였으며 1913년 평양 普通門, 개성 南大門, 경주 石窟庵 등을 重修하고 1915년에는 익산 彌勒寺址 석담을 수리하였다. 1916년 佛國寺 一圓의 建造物과 石壇을 보수하고 같은 해 영주 浮石寺 無量壽殿을 解体修理하여 墨書銘을 발견하였으나 墨書銘에 나온 1377년의 建立年代 보다 100년 내지 150년 정도 앞서는 建築樣式으로 판단하고 이說이 學界에 定設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920년대

1923년 日人學者 関野 貞씨가 「朝鮮과 建築」이란 건축지에 〈朝鮮 最古의 木造建築〉이란 題下에 論문을 발표 浮石寺 無量壽殿이 학계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보수공사로는 金山寺 彌勒殿 등이 대상이 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주목할 만한 연구활동이 많지 않았다.

□ 1930년대

1930년 日人學者 藤島亥治郎씨가

〈朝鮮建築史論〉의 題下로 「建築雜誌」(日本建築學會誌)에 한국의 사찰내의 단위건물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1934년에는 同氏의 論文 〈天灯山 鳳停寺〉가 「中央美術」에 발표되고 1937년에는 「東洋美術」에 강릉 客舍門을 소개하여 고려시대 건물들이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34년 史上 최초 우리나라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日人들 손에 의거 공포되므로 해서 同年 서울 남대문을 비롯하여 9棟의 고려 및 조선초기 건물과 경주 石窟庵이 지정되고 1936년에는 修德寺 大雄殿을 비롯하여 14棟의 建造物이 추가 지정되었으며 이어서 1938년에 淨水寺 法堂, 雙峰寺 大雄殿 등 5棟, 1939년 法住寺 捌相殿 등 12棟이 지정되었으며 史蹟으로는 경주 포석정을 비롯하여 17건이 지정되었다.

또한 寺址의 발굴도 1930년대에 가장 많았는데 1935년, 1936년 2차에 걸친 부여 軍守里寺址가 발굴 조사되었고 1938년, 1939년에는 평양의 고구려寺址인 淸岩里寺址가 조사되어 최초로 고구려의 伽藍制度를 알게 되었으며 같은 해에 경주 千軍里寺址 및 大同軍 元五里寺址가 조사되고 부여의 東南里廢寺址와 佳塔里廢寺址 등도 발굴 조사되었다.

建造物의 대표적인 보수공사는 1931년의 成佛寺 極樂殿이 있으며 1935년의 華嚴寺 覺皇殿, 心源寺 普光殿, 1937년의 無爲寺 極樂殿 등을 손꼽을 수 있다.

□ 1940년대

건축사 관계 논문으로서의 한국인으로 慎武賊·張起仁 兩氏가 「朝鮮과 建築」에 〈畿湖 및 關北地方의 住宅에 대하여〉와 〈韓國住宅 裝飾小考〉 등을 1940년에 발표하였으며 建築史 關係 著書로는 關野 貞씨의 논문들을 한글에 엮은 단행본 「朝鮮의 建築과 藝術」, 米田美代治씨의 「朝鮮上代建築의 研究」 등을 들 수 있다.

建造物の 지정은 金山寺 彌勒殿을 비롯하여 6棟이 1930년대에 이어 추가로 지정되었다. 遺蹟址의 발굴조사는 1934년 부여의 定林寺址 발굴조사를 들 수 있으며 보수공사로는 해방되던 해에 長安寺 四聖殿, 關心寺 大雄殿이 수리를 끝마쳤다.

또한 1944년 定州에 있는 深源寺 大雄殿이 소실된 사건이 있었다.

□ 1950년대

1955년 國立博物館에서 「美術·考古學用語集 建築編」이 발간되었으며 1958년에는 1956년에 解体修理하였던 강진 無爲寺 極樂殿의 수리공사 보고서가 출간되었고 金仁鎬씨의 〈海印寺 造営計

하였다.

建造物の 지정은 1957년 장수 鄉校 大成殿과 남원 廣寒樓, 1958년 披香亭, 禪雲寺 大雄殿, 來蘇寺 大雄殿, 開岩寺 大雄殿, 洗兵館, 1959년에 華嚴寺 大雄殿, 松廣寺 藥師殿 등 7棟이 지정되어 1950년대에 14棟의 建物이 보물로 되었고 史蹟으로 牙山孟氏 杏壇이 지정되었다.

발굴조사로는 1959년 실시된 경북 월성군 양북면 용당리 소재 感恩寺址의 조사를 들 수 있으며 이 寺址 調査가 해방후 韓國人 학자들만으로서의 최초의 본격적인 발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수공사는 1956년 국립박물관 주관하에 강진 無爲寺 極樂殿이 完全解体 수리되었다.

□ 1960년대

1961년 국립박물관에서 1959년에 발굴조사한 感恩寺址의 発掘調査書가 출간되었으며 1962년에는 문교부가 주관하여 「國寶圖錄」(木造建物篇)이 출간되고 1963년에는 「石窟岩修理工事報告書」가 나왔다. 1964년에는 朱

(1964), 국립박물관의 金剛寺址(1964~1966), 문화재관리국의 益山彌勒寺址 부분발굴(1966), 서울대의 岩寺洞 先史遺蹟(1967), 東國大의 聖水寺址(1968), 梨大의 皇龍寺講堂址(1969) 등이 1960년대의 대표적인 발굴 조사이었다.

建造物の 지정은 1960년의 無量寺 極樂殿, 栗谷寺 大雄殿을 비롯하여 매년 2~3棟씩 보물로 24棟이 지정되었고 史蹟으로는 水原 華寧殿, 景福宮 등 16件이 지정되고 史蹟 및 名勝으로는 佛國寺·法住寺·海印寺가 지정되었다. 중요민속자료로는 1967년 강릉 船橋莊을 비롯하여 구례 雲鳥樓, 창녕 河丙洙씨 가옥 등이 지정되어 보호를 받게 되었다.

또한 建築史上 重要 보수내용은 1961년의 서울南大門 完全解体, 1963년으로부터의 石窟岩補修, 1964년의 海印寺 經板庫 및 修德寺 大雄殿 수리, 1966년 華嚴寺 覺皇殿 수리, 1967년의 光化門 복원, 1968년의 法住寺 捌相殿 完全解体修理, 1969년 鳳停寺 極樂殿 完全解体修理 등이 대표적 수리공사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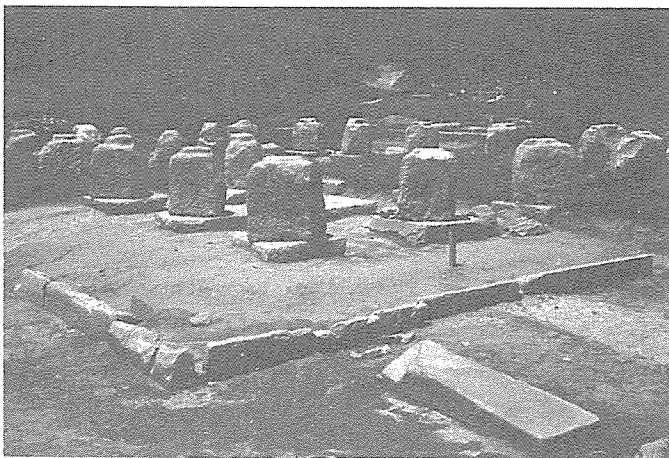


圖 1: 익산 彌勒寺址 발굴



圖 2: 경주 皇龍寺址 발굴

劃에 대한 考察)이 靑丘大 논문집에 발표되고 李光魯씨의 〈動的均齊論과 자연상태의 건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가 「建築」誌에 발표되었다. 같은 해에 柳洪烈씨는 「郷土서울」에 〈서울과 최초의 洋屋建物〉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 근대건축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또한 日政期 우리나라에 駐在하면서 목조건축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던 日人學者 杉山信三씨가 1959년 〈高麗末·朝鮮初의 木造 建築에 관한 연구〉란 油印物 단행본을 발표

南哲씨의 〈韓國住宅의 변천과 발달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같은 해에 「韓國古建物上樑文集」(考古美術同人會·申榮勳編)이 간행되었으며 1966년 이후 1968년까지의 重要論著 및 보고서로는 「서울南大門修理工事報告書」 및 「金剛寺」 발굴조사보고서, 金正基씨의 〈韓國住宅史〉, 張起仁氏의 「韓國建築用語集」, 申榮勳·金東賢 兩氏의 〈韓國古建築斷章〉 등을 들 수 있다.

발굴조사로는 서울대의 春川校洞 梁穴住居址(1962), 東國大의 臨江寺址

□ 1970년대 이후

1970년대에는 어느 年代보다 建築史研究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발표된 논문과 저서 등이 모두 120여편이었다. 이 편수는 1960년대의 180여편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나 많은 저서가 나왔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 가장 研究活動이 왕성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들 논문중 중요한 것을 보면 鄭寅國씨의 「韓國建築 樣式論」, 尹張燮



圖 3: 월성 感恩寺址 발굴

씨의 「韓國建築史」, 申榮勳씨의 「韓屋과 그 歷史」, 문화재관리국의 「韓國의 古建築」, 「雁鴨池」, 「佛國寺」, 朱南哲씨의 「韓國建築意匠」, 安瑛培씨의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金鴻植씨의 「實學建築思想研究」, 朴萬植씨의 「韓國古代伽藍의 配置 및 平面計劃에 관한 研究」, 金興坤씨의 「韓國古建築의 意匠에 관한 研究」 등을 들 수 있다.

遺蹟의 발굴조사는 문화재관리국의 佛國寺를 비롯하여 雁鴨池·皇龍寺址·興輪寺址 일부 및 서울대의 欣岩里岩寺洞의 先史遺蹟, 圓光大의 彌勒寺址 東塔址, 東國大의 芬皇寺 일부, 檀國大의 陳田寺址, 慶州史蹟管理事務所의 高仙寺址 등이다.

지정된 내용은 1971년의 淸風 寒碧櫻를 비롯하여 8棟이 보물로 지정되

었고 史蹟으로는 郵政總局外에 15건이, 중요민속자료로는 月城 孫東滿씨가옥 외에 43건이 지정되어 중요민속자료의 指定豐年代를 맞이 하였다.

보수로는 수원성곽의 보수 및 복원, 無量寺 極樂殿 完全解体補修, 銀海寺 居祖庵 靈山殿 보수, 開心寺 圓通殿, 晉州城 보수, 開心寺 大雄殿, 松廣寺 國師殿, 鳳停寺 極樂殿 完全解体修理, 神勒寺 祖師堂 解体補修, 淸平寺 回轉門 解体補修, 江華山城의 門樓復元, 金山寺 彌勒殿 補修 등 1960년대에 이어 문화재의 보수와 복원 그리고 史蹟地 淨化工事が 가장 많았던 年代라 할 수 있다.

이상 한국건축사 연구의 개략적인 80年史를 개괄적으로 간추려 보았다.

韓國建築研究 80年史를 좀더 구체적으로 一瞥하면 5期로 구분할 수 있

을 것 같다.

第1期를 1902년으로부터 1915년까지로 하면 이 기간은 연구성격상 地表調査가 위주였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第2期는 1916년에서 1933년까지의 기간으로 성격은 個體研究가 주로 활발하였던 시기였으며 第3期는 1934년으로부터 解放의 1945년까지로 建造物이 어느 기간보다 많이 지정되고 또 보수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解放 이후 1965년까지의 第4期는 日인들이 세우는 學說을 그대로 반추하거나 發展期를 지향하기 위한 過渡期的 성격을 띠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되며 1966년 이후 현재는 建築史 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한 發展期의 초기단계에 접어든 느낌을 주고 있다.

너와내가 막은밀수 자립경제 초석된다